

주요 정책토론

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은 세계 각국 GNP의 약 2~5%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. 술 권하는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양주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여성 음주자가 증가추세에 있어, 건강 등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. 본고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한 『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』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.

음 주 의 사 회 적 비 용 과 정 책 과 제

일시: 1997. 9. 11. (목) 13:30~17:00

장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

사 회: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

발 표: 노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토 론: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

배종규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

서 일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

신동식 서울신문 심의위원

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국장

오동렬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

윤용로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

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학장

이용수 동아일보 편집위원

이 웅 일간보사 주간

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

조성기 한국생산성본부 정책사업팀장

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

한태선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

허봉렬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(가나다 순)

1. 음주의 현황 및 문제점

가. 음주의 현황

- 우리 나라는 1인당 순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주류의 수입이 1992~1995 기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함.
 -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20세 이상 인구의 음주율은 남자 83.0%, 여자 44.6%로서 특히 여성 음주율은 1992년 33%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. 남자 12.1%, 여자 1.9%는 매일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1995년 주류의 출고량은 1994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등 최근 출고량의 증가추세는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, 알코올 수입량은 1992년 99,818 kℓ에서 1995년 193,914kℓ(20세 이상 1인당 6.4 ℓ)로 3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알코올 공급물량은 계속 증가함.

나. 음주의 문제점

- 지나친 음주는 본인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가정문제, 음주·흡연·약물남용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.
 -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, 과음은 간질환, 위염, 췌장염, 고혈압, 중풍, 식도염,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킴. 또한 지속적인 음주는 태아성 알코올증, 고지혈증, 혈액응고장애, 면역학적 문제, 저알부민혈증, 빈혈, 백혈구 감소, 혈소판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고, 근골격계에 작용하여 근육질병을 일으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이 되며,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 - 교통사고, 추락사고, 화재, 익사 등 각종 사고도 음주와 관련이 있고, 외국 여러나라의 산업재해의 15~25%가 음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고 되고 있으며, 폭력 및 범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살인범 34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84.6%, 여자의 37.9%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남.

- 반사회적 행동, 정신장애, 기타 약물남용, 강박신경증 등의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알코올 중독자에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우울, 자살도 음주와 관련이 있음. 과음은 가족구성원의 정서와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, 불안 및 우울의 위험성이 높고 비행 확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, 특히 가정의 폭력중 음주후에 아내를 구타한다는 비율이 50%임.
- 음주는 근로자의 결근일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음주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. 미국의 과음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저하율은 21~25%로 보고되고 있음.

2.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 추계

- 우리 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손실 비용은 1995년에 약 9조 7840억원으로 추정되어 GNP의 2.8%를 차지함. 항목별로는 의료비 9900억원(10.1%), 지나친 음주로 인한 생산성의 손실비용 5조 8600억원(59.9%),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비용 2조 8800억원(29.4%)임.
- 이같은 규모에 과도한 주류소비지출 비용을 포함하면 약 13조 8396억원으로 GNP의 3.97% 수준에 달함.

3. 음주의 경제사회적 손실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

가. 건강증진기금 조성

- 알코올 판매가격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반영하고, 알코올거래 규제와 제조업체들에게 음주피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안을 검토함.
- 건강증진기금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
 - ▷ 세율인상 → 가격인상 → 알코올 소비 감소
 - 소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세율인상의 어려움과 주류 제조업체 및 일부 소비자의 반대가 예상됨.

▷ 주세수입의 일부

- 정부의 세수입 감소로 반대가 예상되나 광고규제의 일환으로 주류 광고비를 기업의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 수입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음.

▷ 알코올규제의 범칙금 수입

- 반대는 없으나 범칙금 규모의 문제가 있음.

나. 주류판매의 면허제의 도입

- 주류판매자에 대해서는 주류취급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발부받도록 하고, 식당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주류를 취급하도록 함.

- 술구매 연령 제한 및 술판매 시간 엄수, 이미 만취한 사람에게 술 파는 행위 금지 등을 위반시에 면허의 정지·취소를 통해서 청소년보호법 제 21조가 잘 지켜 질 수 있는 장치 마련

다. 알코올 남용 및 중독관리 센터

- 미국의 알코올 남용 및 중독 국립연구소(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)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건강과 알코올 관련된 모든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.
- 알코올리즘으로 인한 원인 및 결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, 알코올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,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상담, 알코올 중독의 초기 단계 환자 교육 및 치료 등

라. 절주운동을 위한 NGO 활동의 지원

-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『절주운동협의회』를 발족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나라의 음주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함.
- 음식과 술을 구분하는 의식운동 전개, 음주에 대한 관대한 풍토의 개선 등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잔 안돌리기, 1차로 끝내고 2차, 3차 안가기, 폭탄주 안 마시기, 억지로 술 안 마시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.